

## 또 다른 성스러운 보물들

이소노카미 신궁은 창건 초기부터 검, 갑옷, 그 외의 성스러운 보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무기와 의식용 무구를 보관하는 역할은 일본 황실의 군사적, 종교적인 업무를 감독했던 신궁과 모노노베 가문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신궁에 있는 보물 중 많은 수가 중요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 히노미 방패

이 한 쌍의 방패는 5 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방패는 새로운 천황 즉위식에 세워진 임시 신궁을 지키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제사 도구입니다. 방패의 높이는 140cm, 폭은 70cm로, 성인을 감싸기에는 충분하지만 금속판이 매우 얇아서 전장에서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래되어 손상되기 쉬우므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채로운 색채 미늘이 있는 하라마키 갑옷

하라마키 갑옷은 튼튼한 가죽과 철로 만든 미늘을 수백 개씩 엮어 만들어졌습니다. 아홉 갈래로 트여있는 구사즈리(허벅지를 가리는 부분)와 완곡한 곡선의 흉갑 디자인을 보면 1500년대 혹은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갑옷은 붉은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의 미늘과 어깨 갑옷, 흉갑, 투구 미늘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갑옷은 현재 나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갑옷 보관함

소나무로 만들어진 이 목함은 배례전을 둘러싼 벽을 따라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외관과는 반대로 이 목함은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목함의 뚜껑의 뒤에 적힌 글을 보면 이 목함은 1369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신성함이나 귀함을 지닌 유물은 아니지만, 방문객이 가까이에서 만지고 접할 수 있는 650년 전의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